

권력의 부조리를 파헤친 SBS 월화드라마 '조작' 색보정 작업 후기

글
김봉기 SBS 편집기술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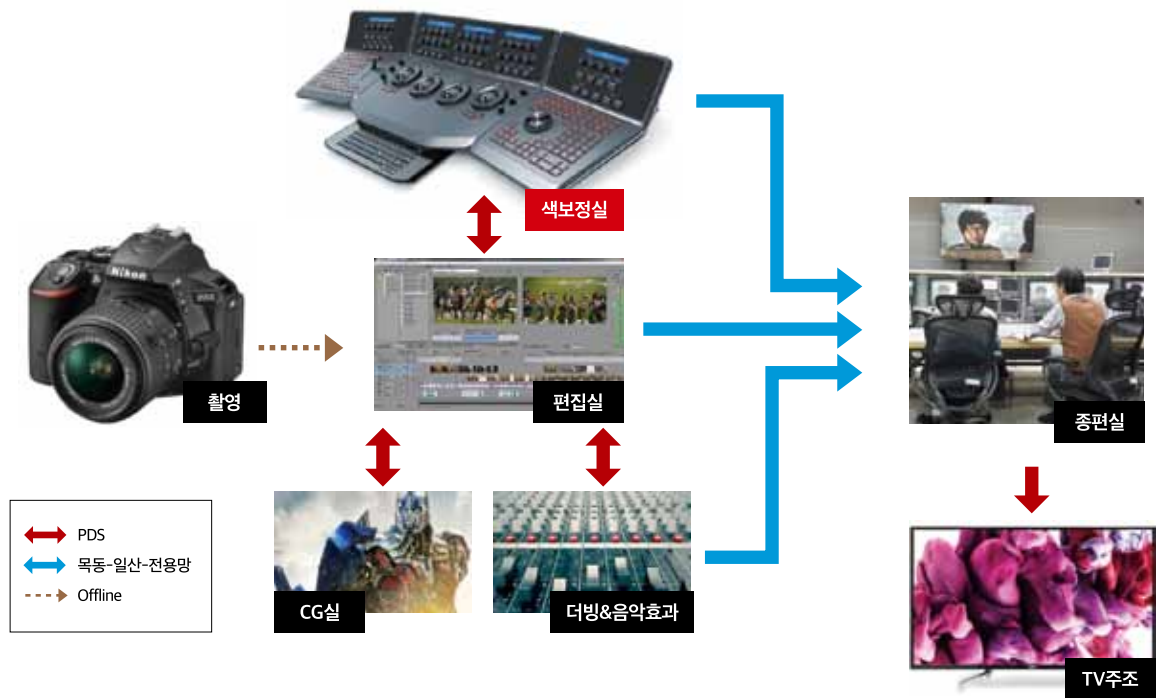
Intro : 색보정 년 뭐니?

필자는 작년부터 색보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방송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후반작업을 담당하는 팀에서 색보정 혹은 색재현이라는 이름으로 해당파트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SBS 색보정실은 장르별로 드라마는 일산제작센터, 교양 및 예능은 목동방송센터에서 작업을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각 방송사의 색보정 컬러리스트 인력은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방송 엔지니어에게 낯선 분야일 수 있다. 본 원고를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한다.

SBS 월화드라마 <조작>은 어두운 비리에 맞서 전장으로 뛰어든 기자,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쫓는 검사의 이야기이다. 부패한 권력과 그를 추종하는 '기레기'가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진실과 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올바른 가치를 보여주고자 기획된 드라마이다. 기획 의도에 따라 Look과 색감을 선정하고 색보정 작업을 진행했다.

Workflow

<조작>이 과거에 작업했던 드라마와 가장 큰 차이는 RED EPIC DRAGON을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점이다. 주로 사용했던 ARRI의 Amira, Alexa 카메라는 촬영감독들이 선호하고 TV드라마에서도 가장 많이 채택한 카메라이다. <조작>은 기존의 드라마와 다른 Look과 질감을 표현하고자 의도하였고, 높은 계조와 Film Look을 구현한 RED 카메라(렌즈 : 마스터프라임)를 선택하여 촬영하였다. 파일의 흐름을 살펴보면 RED의 RAW 포맷인 R3D로 레코딩을 하고 다빈치리졸브의 컨버팅 기능을 활용하여 EDIUS에서 편집이 수월한 Canopus 코덱으로 컨버팅을 했다. (RAW 파일을 그대로 색보정에 활용하면 보정의 활용의 폭은 늘어나지만 파일 용량이 커서 작업 시간이 증가하고 또한 색보정실에서 사용하는 파블로 색보정 장비의 버전에서 R3D 파일이 Import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TV드라마의 특성상 편성에 맞추어 촬영하고 편집하고 방송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조작>은 촬영과 편집의 중간 단계에 컨버팅을 하여 후반작업의 스피드에 중점을 두었다.) 편집실에 컨버팅하여 전달된 파일은 가편집 및 Fine 편집하여 색보정실, CG실, 더빙 및 효과실에 전달한다. 색보정실에서 본방 영상 외에도 CG 작업한 컷을 추가로 색보정을 하는데, 많게는 수백 컷에 이르고 특히 크로마 CG의 경우는 색감이 틀어져 오는 경우가 빈번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색보정 완료 파일은 편집실로 전달하고 편집실에서 CG 완료본을 인서트하여 목동 종편실로 PDS망을 통해 전송한다. 종합편집실에서는 음악을 믹싱하여 최종 편집을 완성한다.



SBS 월화드라마 '조작' 워크플로우



file-flow

색보정 작업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색보정실에선 씬에 걸맞은 감정을 극대화하여 색을 보정하는 작업을 한다. 기본적으로 촬영 현장에서 잘 못 촬영된 씬을 올바르게 잡고 (예를 들어 낮씬을 밤씬으로, 과노출은 Luma 값 조정, A/B캠의 발란스 조절 등) 강조해야 하는 씬은 콘트라스트를 높이고 색감을 추가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영상미를 추구한다. 드라마 <조작>은 RED A/B 캠만 주로 사용하여 카메라별로 색감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롱테이크 씬이 많아 조명이 균일하지 않았기에 이를 보정하는 작업에 힘썼다. 야외씬은 ND Filter를 사용하여 그린톤의 룩을 기본컨셉으로 잡았다. 하지만 촬영현장에 따라 정도의 균일함이 떨어져 Waveform을 기준으로 톤의 균일함에 신경 썼다.

다른 드라마의 경우, 크로마를 과감히 돌려 색을 입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조작>의 경우 촬영현장의 감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Look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자제하였다. 심지어 Plug-in의 사용도 최소화하고 회상씬도 노말라이즈하는 정도로 작업하였다. 야구에 비유하면 변화구 구사 없이 직구로만 타자를 상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는데 화려한 영상이 전반적인 내러티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색감을 플러스하기보단 과한 것을 마이너스로 정돈하여 전체 흐름에서 보면 안정감 있는 톤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다만 인물 위주의 드라마의 특성을 고려하여 Impact가 필요한 씬에서는 포인트를 주어 지루함을 덜고자 했다. 삭막한 도시의 야경을 RED 카메라가 잘 표현하여 이런 씬은 거의 보정하지 않고 원본을 준용하여 작업하였는데 색보정 감독인 필자의 맘에 드는 씬 중의 하나이다.

Before



After



Before



After



영상과 출판물에서 사용하는 Color Space가 다르고 또한 원고작성을 위해 이미지파일로 캡처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Before & After'를 비교하길 바란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s.(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색보정 작업은 결국 촬영 원본을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완성품으로 만들어나가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아쉬운 점 = 그리고 개선할 점

첫 색보정 당시, 촬영본의 Black 및 White clipping 현상을 발견했다. 높은 계조를 가진 카메라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마치 최신 고사양의 워크스테이션으로 인터넷서핑만 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촬영 RAW 파일로 REDCINE-X PRO 및 다빈치리졸브로 Setting 값을 조절하며 디코딩하였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아 카메라팀에 문의하였는데 카메라 Gamma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촬영본 영상의 Sharpness가 떨어져 촬영현장의 모니터를 색보정실로 가져와 Aperture value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시행착오도 겪었다.

드라마가 끝나면 엔딩 스크롤이 나오는데 워낙 많은 Staff가 협업해 일하다 보니 필자의 이름 찾기도 힘들게 흑~ 지나가곤 한다. 그만큼 하나의 드라마 작품을 위해 수많은 인력이 무더위 속에서도 밤낮으로 땀을 흘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묘하게도 후속 미니시리즈를 작업하면 PD, 작가, 카메라팀 등 거의 모든 Staff는 바뀌고 필자만 또 다른 작품의 작업을 맡게 된다. 결국 필자만 빼고 모두가 바뀌게 되는데 이럴수록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해 진다. 색보정이란 업무는 같은 장비로 일하지만 작품 컨셉과 Staff는 매번 바뀐다. 이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작품의 이해도를 높이고 감성을 색보정 작업에 올곧이 담아내는 일은 여전히 미완성이며 색보정은 물론 제작기술 엔지니어라면 항상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드라마는 시대를 보여준다

원고를 쓰고 있는 현재 <조작>은 중반을 지났고, '방송과기술'이 출간되는 9월엔 후반으로 치달을 것이다. 올해 미니시리즈 4편을 작업하였는데 (피고인-꽃속말-수상한파트너-조작) 모두 법정 씬이 주를 이루는 작품이었다. 대부분 권력의 비리와 이를 바로잡으려는 정의를 외치는 집단의 힘겨운 투쟁을 다룬 드라마였다. 드라마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그만큼 힘든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더 이상 무거운 법정 씬 말고 화사하고 희망찬 과즙미가 가득한 드라마가 많이 제작되길 기대해 본다.

P.S 생활 속의 색보정

동영상과 사진의 색보정 개념은 동일하다. 다만 동영상은 1초에 24 or 30장의 사진이 모여서 완성된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 추억을 사진에 담고 간직할 때, 조금 더 이쁘고 사랑스럽게 감정을 담아서 표현하는게 생활 속의 색보정일 것이다. '방송과기술'에서 연재하는 사진보정프로그램 SONY Capture one Express를 사용해도 되고 필자는 범용적인 Adobe Lightroom을 사용한다. 또한 최근엔 DSLR 카메라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RAW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5.0 이상/ iOS 10 이상 지원) 부쩍 다가온 가을의 선선한 바람에 연인, 가족과 함께 카메라를 들고 교외로 나가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고 Instagram에 올릴 느낌 충만한 인생 사진도 많이 찍고 이쁘게 보정도 하길 추천한다.

RAW : 센서의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 [센서]→[ADC]→[DSP]→[저장]의 구조에서 [DSP]처리를 하지 않고 저장. 센서의 Color filter를 거친 값이 보존되나 파일 용량이 크다. 📷